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지원 프로그램 토론회 및 연수회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16일(수) 오후 1시,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과 프로그램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및 연수회를 개최한다. 본 연구소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3차년도로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이며 관련 사업 관계자 및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현장 보급 연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2개년에 걸친 연구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이란 기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연계 내에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를 활용하고, 영유아에게는 바람직한 교육적 발달 지도 프로그램을, 부모에게는 영유아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교사 및 전문인력에게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와 연수를 제공하며 지역 내 영유아 대상 사업 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자원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정부부처와 각 부처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의 드림스타트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사업)과 유아교육과의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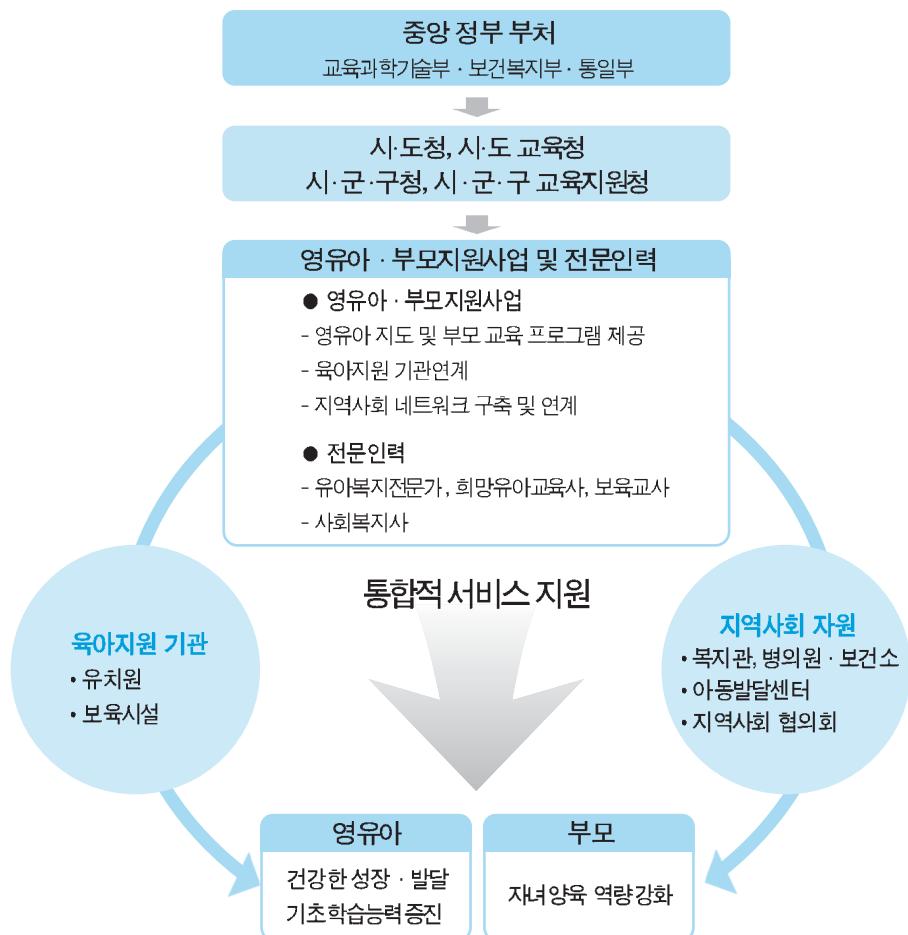
| | |
|-------------|--------------------------------------------------------------------------------------------|
| 13:00~13:30 | 등록 |
| 13:30~13:40 | 개회식 인사말씀 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 13:40~14:00 | 주제발표 취약계층 영유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과 프로그램 활용 방안 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 14:00~14:30 | 토론 인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교육연구관 강현옥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프로젝트조정자 전연진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팀장 |
| 14:30~14:50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 14:50~15:00 | 휴식 |
| 15:00~17:30 | 프로그램 활용 연수 |
| 17:30~ | 폐회 |

지원사업,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착지원사업이다.

전달체계는 중앙부처의 행정 지시사항, 상호 업무 분담 및 협조를 담당하는 시·도청(시·군·구청 포함)과 시·도교육청(시·군·구 교육지원청 포함)이며, 관할 학교(유치원 포함)와 센터, 기관을 이용하여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각 사업의 참여인력으로는 교복투사업의 유아 교육복지전문가,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지원사

업의 희망유아교육사, 드림스타트 사업의 보육교사, 하나센터 사업의 사회복지사를 들 수 있다. 참여인력에게는 전문성 제고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적용을 위하여 주기적인 연수를 실시한다. 참여인력은 영유아 및 부모를 직접 지도·지원하는 전문가로 유아교육 및 보육 분야 전공자가 적합하며, 그 외에 영유아 사업을 포함하여 여러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조정하는 관리자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하며 공동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림 1]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2개년에 걸쳐 취약계층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개발 프로그램에는 영아용 지도프로그램, 유아용 지도 프로그램, 유아용 개념학습활동 자료와 더불어 개별 지도용 프로그램과 집단용 프로그램 및 양육수준 검사지와 같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한 뒤 현장 연계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육아지원 모형과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가정유형별로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소득 가정, 농어촌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0년도에 통합적 육아지원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영유아 발달 측면에서는 영아 및 유아용 지도프로그램을 적용한 영유아들이 대부분의 발달영역에서 향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부모(양육자) 양육 수준 검사는 0세에서 만5세 자녀를 가진 저소득 및 북한이탈주민가정의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 결과 영아기 부모는 언어적 지원에서($t=-1.753$, $p<1.0$)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양육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음으로 인해 유아들에게 필요한 물리적, 환경적 제공 및 지원과 더불어 인지적, 언어적, 놀이지원, 학습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양육자)만족도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적용 후 영유아의 변화 여부에

대해서 영아 부모 100%, 유아부모 91.5%가 변화했다고 느꼈다. 또한 영유아에게 가장 도움이 된 영역은 영아 부모는 66.7%가 언어인지발달을, 유아 부모는 34.8%가 언어영역을 꼽았다. 또한 개념학습활동 적용 후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 통틀어 89.7%가 변화하였다고 보았으며, 부모교육 적용에 대해서는 93.3%가 변화하였다 고 답했다. 향후 프로그램 진행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90.8%의 응답자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94.3%의 응답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권유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부처 사업 측면에서는 각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여 가능한 한 사업들 간의 특징과 장점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의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활용 측면에서는 홍보 및 인력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교재교구 세트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인력 연수를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력이 지역사회에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지원 대상 가정에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 육아지원 모형 적용의 일반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과 전문컨설팅, 정부부처의 취약계층 영유아 지원사업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